

## 아시아 넘어 세계로 'CHINAPLAS 2011' 전세계 이목을 사로잡는 강력한 경쟁력

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가공기계의 수출국이며, 세계 제2의 플라스틱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국이다. 중국의 2009년 사출성형기 수출 대수는 10,989대로서 전 세계 사출성형기 수출물량의 34.5%를 차지하였으며, 금액으로는 358백만 달러로서 전 세계 수출고의 47.21%였다.

2009년도 사출성형기 수출금액을 대륙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. 아시아, 58.1%, 남미 13.33%, 유럽 12.39%, 아프리카 12.64%, 북미 2.53%, 오세아니아 1.01%. 현재 중국의 플라스틱 가공기계는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.

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박람회인 CHINAPLAS는 해가 갈수록 세계 각지에서 오는 관람객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플라스틱과 고무산업의 주요 행사가 되었다.

작년 CHINAPLAS의 관람객은 총 81,435명이었으며, 그 중 18.1%인 14,701명은 세계 13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. 또한 4일간 개최되는 이 박람회에는 약 50개 국가의 각종 협회와 기업의 대표인으로 구성된 바이어 그룹이 방문하였으며, 그 주요 국가로는 브라질, 이집트, 이란, 인도, 일본, 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 등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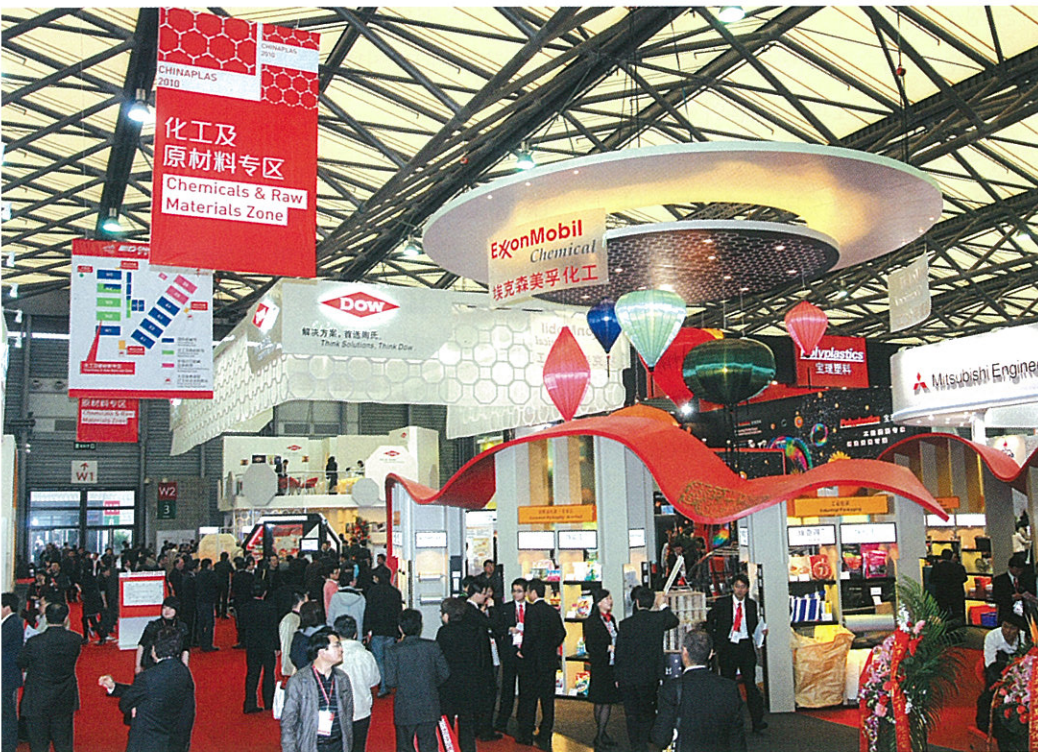
CHINAPLAS 박람회의 주최회사인 애드세일 익지비션 서비스(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.) 사는 이 분야의 시장 잠재력을 파악하고 2004년에 처음으로 중국 수출 기계 및 원료 전시관을 열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기계류와 원료를 전시하였다. 이 테마 전시관은 그 동안 세계 각지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이제는 CHINAPLAS에서 가장 인기 높은 전시관이 되었다.

애드세일 익지비션 서비스사는 내년에는 창조우 헝리(Changzhou Hengli), 뤼엔펑밍(Ruian Fengming), 장지에강 시티 일리(Zhangjiagang City Yili), 창조우 용밍(Changzhou Yongming), 허페이 티엔펑(Hefei Tianfeng) 등 중국 유수의 기업들이 이 테마 전시관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아시아 최대의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박람회인 제25회 CHINAPLAS 2011은 2011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 최대의 전시 센터인 중국 광조우에 있는 중국 수출입박람회 파조우 단지(China Import and Export Fair Pazhou Complex)에서 개최된다.

### 플라스틱 관계자 대거 차이나 입국할 듯

CHINAPLAS는 그 세계적인 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. 9월 초, 주최측은 중국 절강성 타이조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플라스틱 포럼에 후원자로 참가하여 아시아와 유럽, 미국, 남아프리카 등 12개 국가의 20여 플라스틱 관련 협회 그리고 중국



내 30여 개 협회에서 온 수백 명의 업계 대표와 전문가들에게 CHINAPLAS 2011의 추진 현황을 소개한 바 있다.

CHINAPLAS 2011 박람회는 해외 바이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의 여행사들과 제휴하고 있다. 현재 알제리, 핀란드, 인도, 인도네시아, 한국, 말레이시아, 뉴질랜드, 파키스탄, 남아프리카, 미국, 영국 등지의 대규모 여행사들이 참여하고 있다.

**‘동양 최대’와 ‘서양 최고’의 만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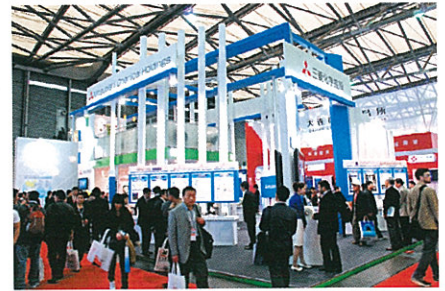
플라스틱 및 고무 관련 업계의 바이어들과 제조업체들이 교류하고 최신 시장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만남의 장소로서 CHINAPLAS 박람회는 전세계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.

세계 각지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전시회를 보다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HINAPLAS 2011 주최사인 애드세일은 세계 최대의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박람회인 K2010에 참가해 기념품 제공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

치기도 했다. ‘동양 최대와 서양 최고’의 만남이라는 명제가 무색하리만큼 이번 CHINAPLAS는 K2010에 못지 않은 규모와 관람객들의 관심으로 아시아권 플라스틱 산업을 대변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.

**세계 유명 업체들 앞 다투어 조기 신청**

주최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미 CHINAPLAS는 전세계 대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. 지난 9월 기준으로 1,850여 기업들의 참가가 확정되었으며, 아케이(Akei), 아사노(Asano), 아비앙(Avian), BASF, 보레알리스(Borealis), 콘에어(Conair), 다우케미컬(DowChemical), 듀폰(Du Pont), 엔겔(Engel), 엑손모빌(ExxonMobil), 팡리(Fangli), 펑밍(Fengming), 하이티엔(Haitian), 헝리(Hengli), 후아롱(Huarong), 즈웰(Jwell), 존 와이(Jon Wai), 진후(Jinhu), 리엔수(Liansu), 랑세스(Lanxess), 몰드-마스터즈(Mold-Masters), 난 룡(Nan Rong), 라피드(Rapid), SABIC, 삼성 토탈(Samsung



Total), 신일(Shinil), 유도(Yudo), 쟈마(Zerma), 종야(Zhongya) 등의 주요 기업이 전시부스 예약을 마쳤다.

박람회장의 총 면적은 약 16만 평방미터로서, 파조우 전시단지내의 Zone A와 Zone B에 20개 전시관이 준비되어 있다. 세계 35개 국가의 2,200 여 유명 기업이 참가하게 되는 CHINAPLAS 2011 박람회에는 자동차, 건축 및 건설, 전기와 전자, IT 및 통신, 포장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를 위한 최신의 기술과 제품이 전시되어 경쟁력 및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할 전망이다.

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방문 예약을 접수하고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경우 무료 입장권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특히 주최측은 참가업체, 전시 품목, 전시장 규모 등 박람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등 방문객을 위한 사전 서비스에도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다.

www.ChinaplasOnline.com

